

## 『내 동생은 수박이에요』 독후 활동지



로랑 리블레그 글 | 올리비에 탈레크 그림  
봄소풍 | 초등3~4학년 | 봄소풍 보물찾기 03

“

동생을 기다리고 지키려는 아이의 마음을  
솔직하고 위트 있게 담아낸 이야기

”

# 활동 1 질과 친해지기

『내 동생은 수박이에요』의 주인공 질은 정말 엉뚱하고 재미있는 친구지요. 질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하며 한 걸음 더 질과 더 친해져 봅시다.

1. 질에 대한 다섯 가지 퀴즈를 풀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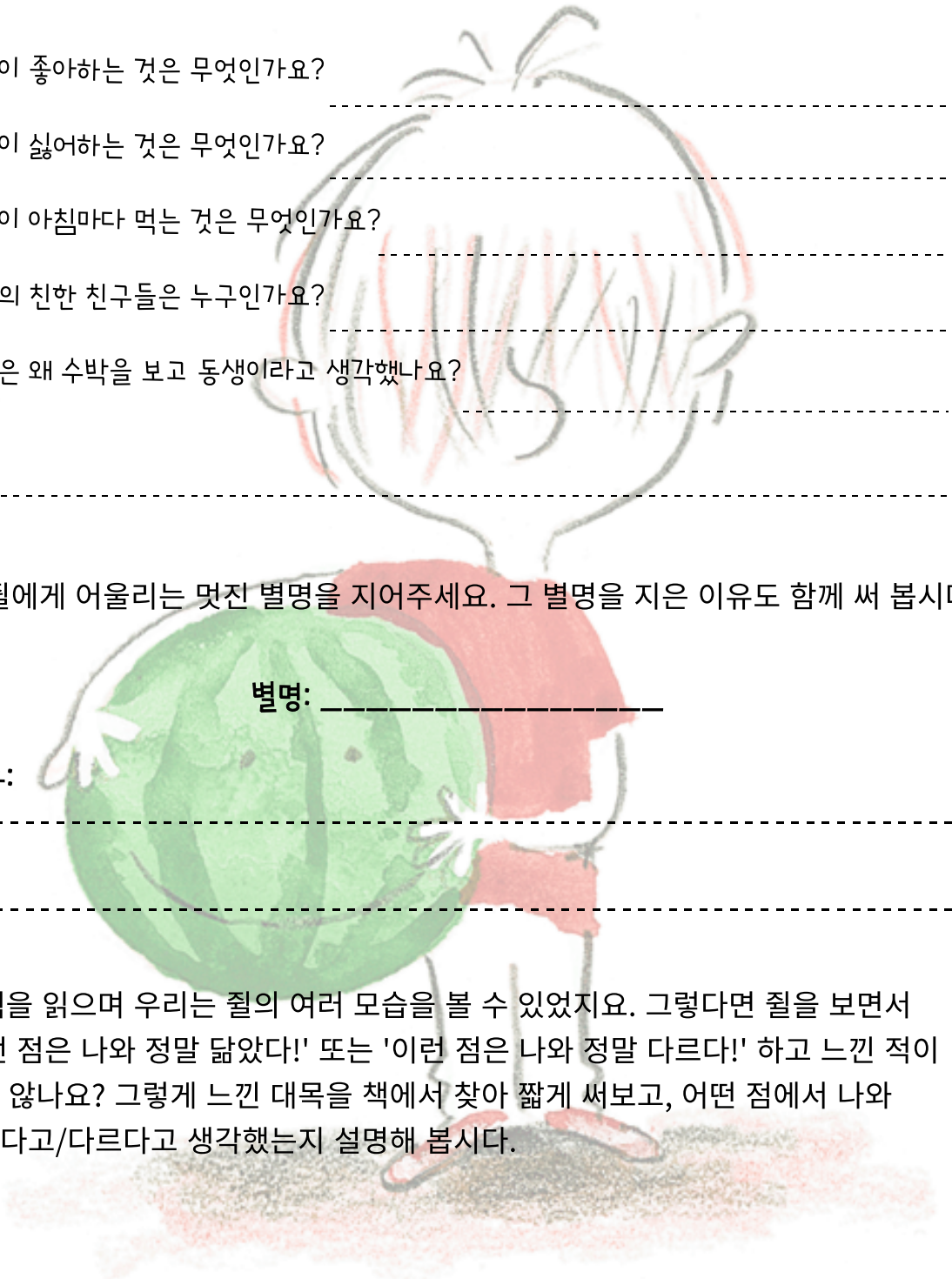
- 질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 질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 질이 아침마다 먹는 것은 무엇인가요?  
-----
- 질의 친한 친구들은 누구인가요?  
-----
- 질은 왜 수박을 보고 동생이라고 생각했나요?  
-----

2. 질에게 어울리는 멋진 별명을 지어주세요. 그 별명을 지은 이유도 함께 써 봅시다.

별명: -----

이유: -----  
-----

3. 책을 읽으며 우리는 질의 여러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그렇다면 질을 보면서 '이런 점은 나와 정말 닮았다!' 또는 '이런 점은 나와 정말 다르다!' 하고 느낀 적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느낀 대목을 책에서 찾아 짧게 써보고, 어떤 점에서 나와 닮았다고/다르다고 생각했는지 설명해 봅시다.



- 이 부분을 읽으며 질이 나와 참 ( 닳았다고 / 다르다고 ) 느꼈어!

- 어떤 점이 나와 ( 닳았냐면 / 다르냐면 ) 말이야,



## 활동2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짚은 곧 태어날 동생을 귀찮게 생각하는 것 같더니, 막상 '동생'을 발견하고 나서는 '동생'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요. 그런 짚의 모습은 무척 행복해 보이지요. 사랑을 받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사랑을 주는 것도 그만큼 행복한 것인가 봐요. 다음 질문에 답하며 생각해 봅시다.

1. 짚은 동생에게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베풀었나요? 또는 어떤 부분에서 짚의 사랑이 느껴졌나요? 책에서 찾아 써 봅시다.



-----  
-----  
-----  
-----

2.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본 경험이 있나요? 부모님이나 동생, 친구, 반려동물, 누구에게라도 좋아요. 그때의 경험과 감정을 써 봅시다.

-----  
-----  
-----  
-----  
-----

### 활동3

## 잘 슬퍼하기

슬퍼하는 것까지 잘 해야 한다니,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잘 슬퍼해야 하는 이유는 슬픔을 통해 성장하고 슬픔 이후에 오는 마음들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잘 슬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질문에 답하며 생각해 봅시다.

1. 슬픔은 무슨 색깔이고, 어떤 냄새가 날까요? 어디에서 자라는 걸까요?  
슬픔을 상상의 동물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상을 바탕으로 다음의 '슬픔 카드'를 완성해 보세요.

))●((

이름: 슬픔

서식하는 곳:

주특기:

천적:

친구 되는 법:

기타 특징:

))●((

))●((

))●(( \*●●●●\* (눈)

(슬픔 그리기)

(눈)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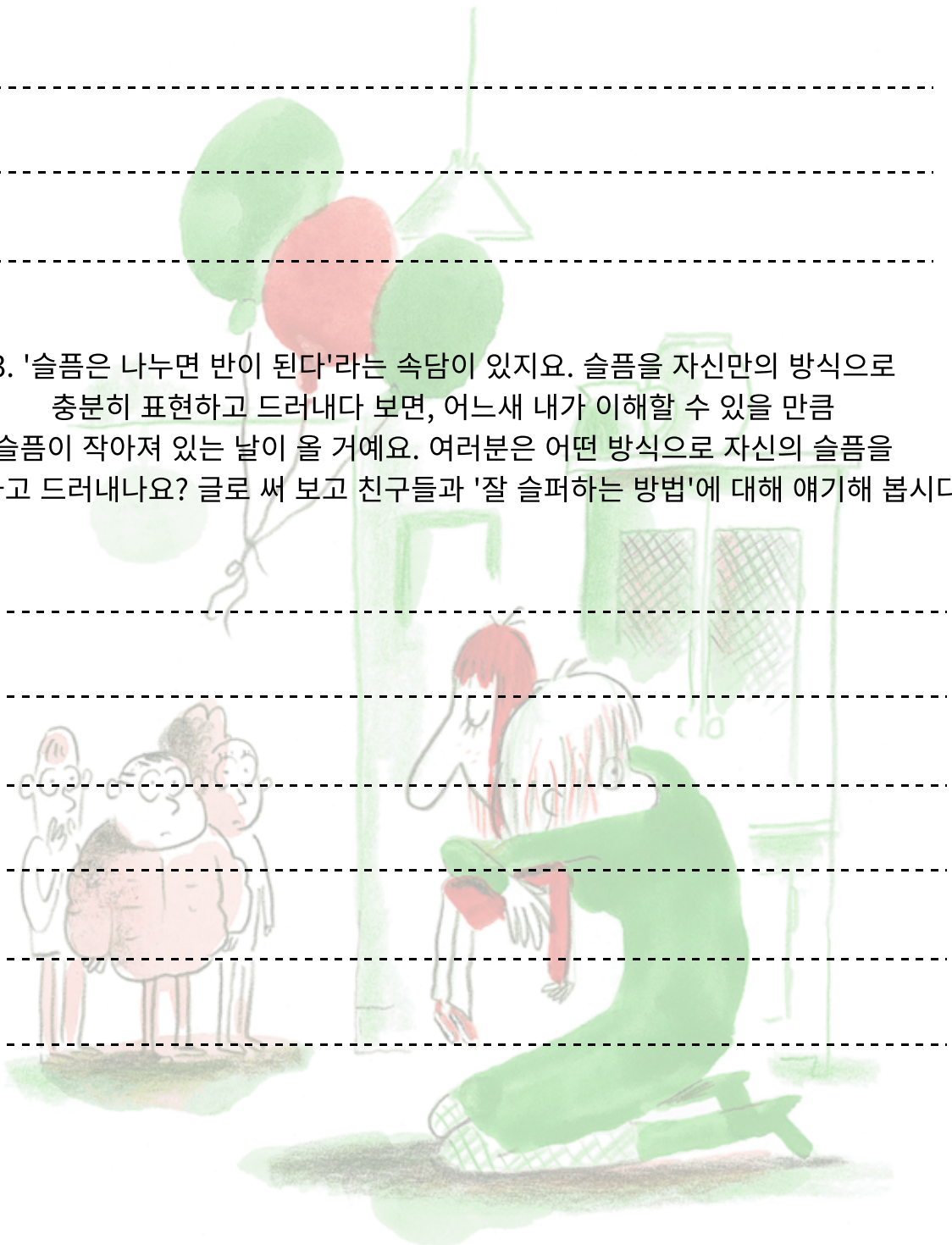
2. 다음은 『내 동생은 수박이에요』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무언가 슬픈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가족들은 짙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아요.  
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저녁 식사는 나 빼고  
아무도 배고파 하지도 않고  
슬퍼하기만 하는 파티  
같았어요.

아빠는 할머니처럼  
“다 괜찮을 거야”라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자꾸 그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걱정이 된다고요.

솔직히 나는 좀 불안했어요.  
세상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 자그마한 아기가 혼자  
없어졌다는 것도 그렇고,  
엄마 아빠가 동생을 찾으러  
나갈 기미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3.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슬픔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충분히 표현하고 드러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슬픔이 작아져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고 드러내나요? 글로 써 보고 친구들과 '잘 슬퍼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 활동4

# 죽음은 나쁜걸까

죽음이란 말은 아직 낯설게 느껴져요. 하지만 주인공 짚은 문득문득 죽음에 대해 궁금해지죠.

'죽음은 나쁘기만 한 걸까?', '죽음은 왜 있는 걸까?'

짚의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1. 다음은 책 내용의 일부입니다. 아빠는 밑줄 친 짚의 말에 어떤 대답을 해 주었나요?

나는 콜랭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어 마음이 놓였고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기도 죽을 수 있다는 건 몰랐어요. 나이가 아주 많이 든 사람들만 죽는 줄 알았거든요.

나는 아빠에게 죽음은 정말 쓸데없고 나쁘기만 한 일 같다고 말했어요.

아빠는 생각에 잠기는 듯 보였어요.

---

---

---

2. 짚은 처음에 죽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생각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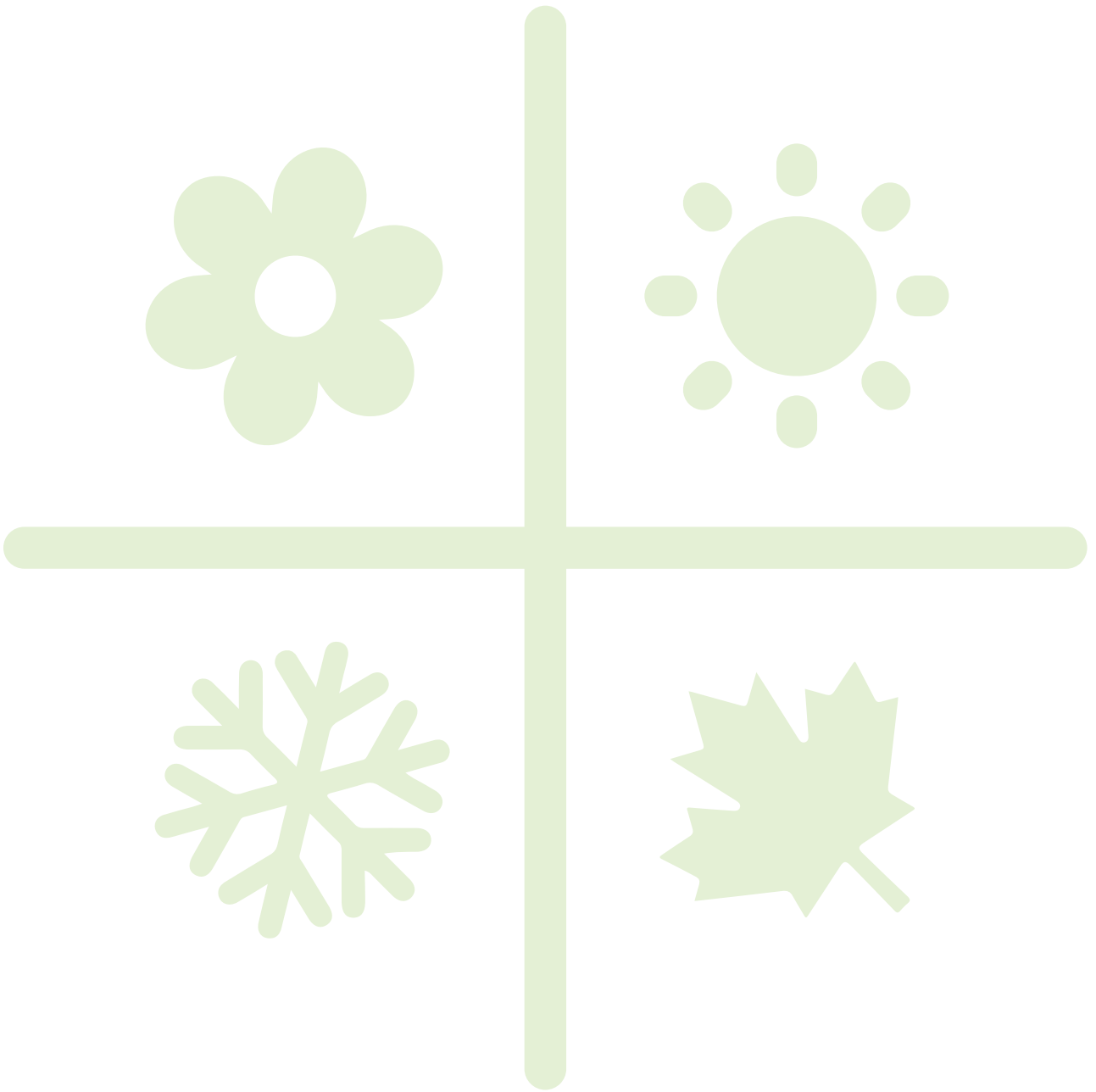
아직 어리기 때문에 먼 일 같고, 죽음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나의 인생이 딱 1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봄에 어린이가 되고, 겨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 1년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1년의 계획표를 짜 봅시다.

죽는다는 게 뭘까 나도 가끔 생각하는데요,  
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죽음은 되게 이상하고 겁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누군가가 죽음을 발명했겠죠?



3. 죽음은 왜 있는 걸까요? 위의 활동과, 『내 동생은 수박이에요』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여러분이 대답해 봅시다.

-----

-----

-----



## 활동5 동생에게 쓰는 편지

책의 뒷이야기를 상상해 볼까요? 철의 동생은 병원에서 무사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쑥쑥 커서 이야기 속 철만큼 자랐죠. 그래서 철은 동생에게  
'네가 수박이었던 시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면 동생에게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줄 수 있을까요?  
동생이 병원에 있는 동안 철과 철의 가족들이 겪었던 사건과 감정을 담아  
동생에게 줄 편지를 써 보세요.

사랑하는 동생에게

내가 비밀을 하나 말해줄게. 네가 처음 태어났을 때, 아니 태어나기 전인가?

아무튼, 너는 사실 수박이었어!

